

코믹 노랫말+경쾌한 리듬...개그맨과 딱 맞네

유재석 이어 김신영도 트로트 곡 ‘김다비’ 부가로 ‘주라주라’ 공개 “다비, 45년생 비오는 날 태어났죠” 조혜련, 동지 옮기고 트로트 채비

최근 개그우먼 조혜련이 트로트 가수 로 나설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설 운도, 문희옥 등 다수의 트로트 가수들이 소속된 기획사 루체엔터테인먼트를 새 둠 지 삼았다. 앞서 유재석은 ‘유산술’이라는 이름으로 ‘합정역 5번 출구’와 ‘사랑의 재개발’이라는 트로트곡을 선보였다. 이어 김신영이 ‘둘째이모 김다비’라는 캐릭터명을 내세워 트로트 리듬의 ‘주라주라’를 공개했다. 두 사람 모두 성공적으로 데뷔하며 대중적 인기를 끌었다. 새로운 행보에 나선 개그맨들에게 쏟아지는 시선도 이 같은 성과에서 출발한다.

●트로트 열풍에 개그맨 특유의 재능까지 개그맨들의 잇단 트로트 가수 데뷔는 최근 트로트 열풍에 기댄 측면이 있다. 지난해부터 서서히 일기 시작한 트로트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은 새로운 스타들을 탄생시켰지만 유재석과 김신영은 기존의 열풍에 더욱 큰불을 지폈다.

유재석은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를 통해 드러머, 교향악단 하피스트, 방송사 구내식당 조리사 등 다양한 도전에 나섰다. 하지만 그 가운데 유산술로 나선 트로트 가수가 가장 커다란 화제를 모았다. 김신영 역시 최근 ‘주라주라’를 통해 또 다른 트로트 무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개그맨 특유의 다재다능한 면모를 입증한 셈이다. 특히 코믹한 노랫말을 트로트 리듬과 멜로디에 얹어 경쾌함을 자아낸다. 김신영은 ‘입 닫고 지갑 한 번 열 어주라/ 회식을 올 생각은 말아주라/ 주



‘유산술’ 유재석

‘둘째이모 김다비’ 김신영

라주라주라 휴가 좀 주라’로 시작하는 노랫말로 개그우먼의 재능을 과시하고 있다. 조혜련도 ‘아나까나’ 발표 당시 코믹 송에 대한 관심을 키우며 연예인이 부른 코믹송 가운데 노래방에서 대중이 가장 많이 부른 노래(TJ미디어 2005년 자료)로 꼽히기도 했다.

●‘부캐’에 친근감까지

유재석의 ‘유산술’과 김신영의 ‘둘째이모 김다비’처럼 개그맨들은 본명이 아닌 새로운 이름을 새로 내세우고 있다. 일명 ‘부캐’(본래가 아닌 부수적인 캐릭터나 그 이름)로 불리는 활동명이다.

김신영은 최근 KBS 1TV ‘아침마당’에 출연해 “빠른 45년생이며 ‘김다비’라는 이름은 ‘말을 다(多)’에 ‘비 비’자를 쓴다”면서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 태어난 사연 있는 둘째 이모”라고 소개했다. 시청자는 김신영을 신인가수로서 바라보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고, 김신영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캐릭터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관찰예능 등 스타들의 일상을 담은 프로그램이 자리 잡으면서 ‘실제 연예인=캐릭터’화가 된 상황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최영균 대중문화평론가는 ‘부캐’가 ‘개그맨의 본래 캐릭터 색깔을 더욱 짙게 하면서 대중에게 친근감까지 안겨주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One pick 연애다운



송승헌

슈

‘저녁 같이’ 송승헌 흥행 시동 ‘도박빛 소송 패소’ 슈의 몰락

1990년대 후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두 톱스타의 운명이 엇갈렸다. 한 명은 뒤늦게 전성기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고, 한 명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한동안 장르물에 치중했던 연기자 송승헌이 오랜만에 로맨틱 코미디드라마로 돌아와 흥행 시동을 걸었다. 그는 최근 방송을 시작한 MBC ‘저녁 같이 드실래요’에서 정신과 의사이자 음식 심리치료사인 김해경 역을 맡고 여심을 자극하고 있다. 극중 김해경은 음식과 식사 자리를 통해 의뢰인을 치료해주고 잘생긴 외모까지 더해져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시청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가을동화’, ‘여름향기’ 등 그의 대표작까지 같이 치울 태세다.

이와 달리 ‘요정’으로 불리며 남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또 구설에 올랐다.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했다가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슈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며 세입자들이 곤경에 처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누리꾼들은 “꼭 책임감을 느끼고 도박 빛도 끊고, 세입자들도 힘들게 하지 말라” “1세대 아이돌 스타답게, 아이들의 엄마답게 좋은 모습을 보여달라”는 뼈있는 조언을 잊지 않았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기자 이동휘, 이주영, 장동윤이 각각 독립영화 ‘국도극장’과 ‘야구소녀’, ‘런 보이 런’(왼쪽 사진부터)을 통해 관객과 만난다.

사진제공 | 명필름랩·KAFKA·리온컴퍼니플러스

이동휘 ‘국도극장’·이주영 ‘야구소녀’·장동윤 ‘런 보이 런’

독립영화 문 두드리는 실력파들

배우 이동휘와 이주영, 장동윤이 올림이 깊은 독립영화로 나란히 돌아온다. 최근 영화와 드라마에서 맹활약하면서 제작진의 러브콜을 받아온 이들은 독립영화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채우려는 열망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동휘는 29일 ‘국도극장’(가독 전자·제작 명필름랩)을 일반 상영관과 올레TV 등 온라인 VOD 서비스로 동시 공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극장 상영이 여의치 않은 상황을 고려한 제작진이 더 많은 관객에게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덕분에 ‘국도극장’을 통해 변화를 시도한 이동휘의 새로운 얼굴도 폭넓은 대중에

게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영화는 사법고시에 실패한 주인공이 고향으로 내려가 재개봉 극장에서 일하면서 겪는 이야기다. 낮은 극장을 지키려는 간판장이(이한위), 자식에 헌신하는 엄마(신신애)까지 고향 사람들로부터 받는 따뜻한 위로를 담았다. 이동휘는 최근작인 영화 ‘극한직업’이나 드라마 ‘쌈니다 천리마마트’에서 보이 코믹 연기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의 고단함에

빠진 인물을 담담하게 그린다.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에서 활약한 이주영도 독립영화를 내놓는다. 6월18일 개봉하는 ‘야구소녀’(감독 최윤태·제작 한국영화아카데미)가 새로운 무대다. 이미 ‘꿈의 제인’ ‘메기’ ‘춘몽’ 등 화제작에 빠짐없이 출연해 실력을 과시한 덕분에 ‘독립영화 스타’로도 통하고 있다.

‘야구소녀’에서 이주영은 여성의 성장기

를 그린다. 고교 야구팀의 에이스이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프로팀 입단 테스트조차 받지 못하는 주인공이 새로 부임한 코치와 현실의 벽을 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다.

드라마 ‘조선로코-녹두전’으로 스타덤에 오른 장동윤은 28일 주연 영화 ‘런 보이 런’(감독 오원재·제작 라이온컴퍼니플러스)을 공개했다. 촉망받는 단거리 육상선수가 뜻밖의 사건에 휘말리면서 성장의 이야기다. 이나영과 주연한 ‘뷰티풀 데이즈’ 이후 2년 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와 청춘물을 완성했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인버터 초강력 냉, 난방기

탁월한 유지비 절감!

냉난방비 절약은 기본 공간절약까지~

상가, 교회, 사무실, 식당 등
업소용 냉·난방기
최우수 업체!

1. 초기구입자금 **0원** (최장48개월 할부 렌탈 리스)
2. 무담보/무보증 (사업자등록증만으로도 가능)
3. 카드무이자할부
4. 무료견적

인버터 냉난방기의 탁월한 선택

- ✓ 스마트 절전 가능
- ✓ 3단계 은나노필터 항균시스템 - 쾌적한 실내환경!
- ✓ 친환경 냉매적용(R-410)
- ✓ 쾌속제상기능 - 강추위에도 뛰어난 난방능력!
- ✓ 어떤현황에도 쉽게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제품!

업소 / 대형공장 / 기업 공조시스템

에어컨월드 | 전국무료 상담전화 | **1588-4597** (24시간 상담가능)